

#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관리 체계 강화

### 광주시,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축산농가 소독·질병예찰 주 2회로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여행 자제

광주시는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폭염일 수가 늘어나는 7~8월 에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광주축협과 함께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방역대책 기간에는 기존 주 1회 실시한 축산농가 소독과 질병예찰을 주 2회로 늘렸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안양제 1과 소독약품 0.5을 농가에 지원하고, 광주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생식회를 도포하는 한편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질병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가축의 폐사나 의심신고 시 신속한 진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도축장 3곳에 대한 일제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시는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 축사 주위 물웅덩이 제거, 살충제 방제, 축사 내 환풍기 및 그늘막 설치, 신선한 물과 소금·비타민제·칼슘 등 급여,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건조 상태 유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돼지 사육농가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당부했다. 김병용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과 여름철 사양관리가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질병의 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서석초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발표회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악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각수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1학생1악기 지원사업인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이 학교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구는 12일 서석초등학교에서 '통기타 행복교실' 참여어린이들과 함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초등학교(용산·중앙·서석·장원) 5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악기와 전문강사를 지원해 통기타교실을 운영해왔다. 7월말 종강을 앞두고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사업관계자, 서석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발표회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맘껏 뽐내는 자리가 됐다.

## 서구, 우리동네 변호사 갈수록 인기 더해

광주 서구가 주민생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우리동네 변호사'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우리동네 변호사는 서구 법률자문단에 위촉된 6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서구청 및 운전 열린사랑방에서 민사, 가사, 민생침해 분야 등 생활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우리동네 변호사와 상담한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5% 이상이 만족했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상반기에 112명의 주민이 우리동네 변호사를 이용하는 등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남구, 자동차 관리모범 사업자 2개소 선정

광주 남구는 자동차 관리업계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의 보호에 나서고 있는 자동차 관리업체(유)우성과 ㈜크레인모터폴 2개소를 모범 사업자로 지정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구청에서 '2019년도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장 지정증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모범 사업자로 선정된 (유)우성과 ㈜크레인모터폴은 사업자 시설 및 환경, 고객 만족 등 여러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는 작업 환경을 비롯해 점검 및 정비 명세서 발급 내역 항목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으며, 남다른 애환심과 봉사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북구,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 나선다

광주 북구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구여성행복지원센터가 주관해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52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여성행복 증진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활환경 만족도, 여성행복지원센터 역할 등 총 9개 분야 3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3개월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전 △보행 △보육시설 분야에 대한 여성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구 관계자는 "다양한 여성 일자리 지원, '지역 내 방범 및 안전망 조성', '보행과 유모차 이용에 편리한 도로 개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 광산구 도산동 25개 맛집, 수영대회 기간 할인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가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맞아 대회기간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영대회 내·외국인 손님과 광산구민에게 도산동 골목상권 대표 맛집을 알리고, 지역 인심과 정을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산동 25개 맛집에 찾아가 주문할 때, 광주세계수영대회 입장권을 보여주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각 가게는 입장권 한 장에 한번, 가격의 5~10%를 할인해주거나 따로 마련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참여 가게는 이벤트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을 건물 밖에 부착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광산구보 7월호와 구 홈페이지, 구 소셜미디어에 전체 맛집 정보와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 광주 광산구, 무안 양파 사주기 운동 전개



광산구는 12일 가격하락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무안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실시했다. 광산구의 이날 행사는 관내 유관 기관과 연계해 실시된 것으로 구는

농산물 파동 등으로 농가에 애로가 닥칠 때마다 출선수범해 농가애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생산농가에 양파를 주운한 바

있다.구는 이날 주문했던 양파 10kg들이 1,379명 약 13톤이 도착하자 구청 앞마당에서 주문자들에게 양파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한 생산농가는 "광산구가 천덕꾸러기가 되다시피한 양파를 이렇게 많이 사 주는데 대해 감사한 마음 그 지없다"며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농가를 돕는다는 뜻에서 선뜻 이렇게 구입을 해줘니 고마운 마음 이 더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기후와 강우량 같은 생육조건이 좋아 양파 생산량이 15% 가량 증가했다고 들었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며 "광산구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의 정성이 우리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는 기존 공인의 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여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모든 도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을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 전남도 공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교체

전남도는 기존 공인의 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여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모든 도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을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인 교체 대상은 총 935점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 대표 공인인 전남도지사 직인인(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현 전명옥 선생이 기증한 서체로 교체된다. 전남도는 역동하는 전남의 위상과 혼을 서여가의 감각적 필묵에 담아 독창적이고 주제적인 전남도 대표 공인을 만들었다. 담현 전명옥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 가운데 월인천간지곡과 용비어천가 서체를 바탕으로 한 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살리고 선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힘이 있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명옥 선생의 서체 작품을 행정박물로 지정해 기록관에서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기아차 '청소년 꿈 응원'...전남여고서 드림토크콘서트

쇼핑호스트 유난희씨 초청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세 번째 드림토크콘서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남 광주 동구의 전남여고를 찾아 학생 650여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돕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드림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콘서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 헬렌지 콘서트'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멘토를 초청한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멘토로 초청된 대한민국 1호 쇼핑호스트 유난희씨는 '세상은 나의

것'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비결과 직업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를 꿈꾸며 무려 8년 동안 22편이나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했지만 실패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싶다는 꿈을貫徹한 성공담을 전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차선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유씨는 또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직업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과 끊임 없는 노력이었다고 전했다. 멘토와의 일문일답 시간에 학생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질문하고 진로와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사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상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9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증가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령연금 107-1000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